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17.(금) 11:00	배포 일시	2022. 6. 17.(금) 09:00
담당 부서	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	책임자	과 장 류중재 (044-215-5250)
		담당자	사무관 석상훈 (044-215-5251)
			김주일 (044-215-5257)

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, 「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」 개최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'22.6.17일(금)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음

< 「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」 개요 >

- ▶ (일시·장소) 6.17.(금) 10:00~12:00,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회의실
- ▶ (참석자) ①기재부: 제2차관, 국고국장, 국유재산심의관, 국유재산정책과장, 국유재산조정과장
 ②국유지 개발 위탁기관: 캠프 공공개발기획처장, LH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
 ③개발사업분야: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대표이사, 현대건설 전무,
 태영디앤아이 본부장, 국가철도공단 처장
 ④금융·개발 컨설팅 분야: GH파트너즈 대표이사, 삼일회계법인 이사,
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, 국토연·서울연 연구위원

- 이번 간담회는 민간전문가 및 캠프·LH 등 국유지개발 위탁기관과 함께 국유지 개발사업 방향 및 다양한 개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- 최 차관은 그간 정부가 저활용·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

- 2004년 건축위탁개발제도, 2011년 민간참여개발제도, 2018년 토지위탁 개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나,

-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활용과 생산적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,
- 향후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와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음

□ 이를 위해 최 차관은 ‘국유지 대부기간 확대(최장 50년)’, ‘대부료 산정방식 유연화(매출액 연동 등)’ 등을 통해 현행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*하고,

* 「국유재산법」 정부개정안 입법예고(‘21.12월) → 법제처 심사(‘22.上) → 국회제출 예정(‘22.下)

- 적극적인 개발대상지 발굴을 위해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음

□ 전문가들은 민간참여 국유지 개발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으며, 민간참여 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

- 개발가능 국유지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첫걸음임을 강조하였음
- 아울러, 사업초기 민간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기대부형 개발, 탄력적 대부료 산정, 공모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음
- 무엇보다도 개발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리스크에 대한 정부 지원* 등을 통해 민간주도 개발을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
* 경기불황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민간이 사업 조기종료 요청 시 사업협약 변경 등

□ 최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유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